



Good things*

FREE

Market-m* Life style magazine

2015 Summer

Good Story

Travel

태국, 방콕 여행기 Real Bangkok!

Brand

처음 신어도 오랫동안 신었던 것처럼
편안한 구두 브랜드 _mais e mais

Good Info

Self interior

작은 차이로 큰 변화를!
스위치 플레이트 교체하기

Idea

Welcome to our home!

Movie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맛있는 영화

Music

여름 휴가와 함께 하는 노래

Place

충남 서산, 펜션 제로플레이스



Real Bangkok!

공황을 나서면 뜨거운 공기와 함께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색감의 택시들, 그 색 만큼이나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방콕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자유 분방함과 왁자지껄한 방콕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 활기찬 기운만으로도 에너지를 얻기에 충분했다.

글. 김희진 사진. 이현우



금박 장식의 화려한 왕궁이나 사원 등의 관광지들도 좋지만 방콕 속의 또 다른 방콕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를 갖고 있는 카오산 로드는 놓쳐서는 안되는 곳이다. 방콕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함을 한곳에 모아둔 유일한 곳이 아닐까. 카오산 로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거리의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으로도 묘한 재미가 있다. 여행객들이 많은 곳인 만큼 게스트하우스, 카페, 레스토랑, 마사지 샵 등 다양한 공간들도 즐기기 쉬우며 여행사, 은행, 환전소도 밀집해 있다. 배가 출출해지면 간단히 식사하기 좋은 식당이 많으니 값싸고 푸짐한 로컬 음식을 맛보는 재미도 놓치지 말자. 또한 길가에서 파는 시원한 열대과일 음료를 즐겨도 좋고, 야외 베드에 누워 죽석 발 마사지를 받아도 좋다.

TIP 항공편 & 기후

Fligh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이항공 등 직항편 매일 운항. 비행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Time & Weather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리며 기후는 일년 내내 더운 편. 우기는 5-10 월로 스콜 현상이 이어진다. 건기철인 11-2월 중순이 여행하기 좋다.

- 01, 02. 길거리 음식과 숙박시설이 준비한 카오산 로드
- 03. 형형색색의 택시와 버스가 즐지어 있는 방콕 시내
- 04. 불교의 향취가 가득한 거리
- 05. 시장에 위치한 카페
- 06. 신나는 음악이 함께하는 레스토랑
- 07, 08.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장
- 09. 여러 모양의 선인장
- 10. 쉬어가기 좋은 도심 속 공원
- 11, 12, 13 방콕의 다양한 음식들



여행지에서 현지시장을 둘러보는 것만큼이나 재미난 일이 또 있을까? 주말마다 열리는 짜뚜팍 시장은 사람들의 온기를 넘어 열기로 가득하다. 27개 구역으로 나뉘어 1만 여개의 상점이 골목골목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곳이 왜 방콕 여행의 필수코스인지 알게 될 것이다. 생활용품, 의류, 전통 수공예품, 책, 음식, 식물 등 없는 것 없이 다양한 물건이 판매되어 시장을 누비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쇼핑 중 갈증을 풀어 줄 만한 시원한 커피나 생과일 주스를 파는 카페도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 북쪽으로는 잘 정돈된 짜뚜팍 공원이 접해있어 걷다가 지칠 때, 휴식하기 좋다. 공식적으로 주말시장이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주로 나무와 꽃 등 식물을 파는 상점이 문을 열고, 금요일에는 짜뚜팍 시장의 상점 대부분이 정상영업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자.

TIP 송끄란 축제 Songkran Festival (매년 4월)

송끄란 축제는 태국의 전통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해 열리는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축제. 서로의 손이나 어깨에 향기로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오늘날의 물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거리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물벼락 잔치가 벌어지는데 물세례의 대상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 현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 물 호스를 움켜잡고, 차량에 탑승한 채 드림트로를 물에 끼얹기도 한다.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이므로 누구도 화를 내지 않고 물에 흠뻑 젖은 채 축제를 즐긴다.



마스에마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스에마스는 구두를 이루는 기본적인 '선'만을 이용하여 디자인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기능적인 편안함과 튼튼함을 생각하며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벼우면서도 밀도감 있는 구두이기를 버려버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Please Introduce mais e mais briefly.

mais e mais designs shoes based on our rules that we design with the very basic lines of formation of shoes, and focuses on comfort and solidity of shoes. Moreover, mais e mais aims to make light footwear and at the same time shoes that has high density.

구두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매출을 위해 계절마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맞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두 중에는 완성도가 부족한 디자인들도 있었는데 새로운 디자인을 지향하는 회사에서는 수정의 기회도 없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하자.' 라는 다짐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유행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그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 구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즈음, 저는 도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친 곡물병처럼 생긴 스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퍼 등을 사용하지 않아 일일이 끈을 풀어야 했기에 신고 벗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잘 맞춰져 편안해 지고 오래 신어도 튼튼한 나만의 구두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처음의 불편함은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정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 외부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구두이기에 언젠가 이별을 해야 하는데 헤어질 때 고마웠고 즐거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두를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두 디자이너로 살아오며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 모여 2010년 겨울, 수천에 그려 놓았던 다섯 개의 디자인으로 마스에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What inspired you to launch a shoes brand?

For a long time, I got paid by a shoe design company and designed so many shoes in order to follow the fast-changing fashion trend. Among these shoes I designed, some were well-made but some were not. Whenever I could not make well-made shoes, I got mad at myself as a designer

because those were what I could never fix and only thing I could do was throwing them away. All I could was making promise myself to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

At the time many designers started to think that they want to design something sustainable without considering current fashion trend, I was living in Tokyo. Tokyo had more abundant designs than Korea.

I saw many shoes that has unique design and own style. One day I bought a pair of shoes looked like a Grain Bread, and there were no zipper. It was very uncomfortable to put on and off because I had to tie and untie the shoelaces whenever I had to put on and off. Even though they were uncomfortable shoes, later on even could like the uncomfortable. At the end, they became my prized possessions, and I still have the impression of the shoes. Foot, which gets the most impact among our body parts; therefore, I want to manufacture shoes that we can thanks to when we say good-bye to them. After I came back to Korea, I worked as a shoe designer in a company for a while, and on winter of 2010, I opened mais e mais with 5 designs I had by gathering all of my lesions I got and passion.

마스에마스 제품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자신이 없어서 그만뒀 버리기보다는 자신 없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점점 더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쿄의 가죽 판매점과 프랑스의 가죽 판매점에는 오랜 기간 사용을 하여도 원래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욱 좋은 빛깔이 짙어지는 가죽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매가는 높은 편이지만 그런 긴 관계 없을 만큼의 좋은 가죽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원하는 가죽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에 저는 지금의 마스에마스 구두를 '조금 부족한 구두입니다.' 하며 선언하듯 말을 합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어 지금의 마스에마스를 만들고 있으며 언젠가는 가죽의 원산지에 가서 1년 정도 생활 가죽과 질 좋은 생고무창을 한번에 구매를 하여 공장 창고에 쌓아놓고 구두를 만들고 싶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상상은 생각만으로도 몽글 거립니다.

What is the direction of mais e mais's design?

I do not want to give up on something that seems to be impossible. I just want to face the problem and try to fix it even if it takes longer time. For example, some leathers from leather shops in Japan or France, there are high quality leathers that keep original condition or turn to better color. The price is a bit higher, but the price can be ignored due to its high quality.

It is so true that it is hard to find a good leather material in Korea, so I honestly want to say that, "mais e mais's products are not perfect yet" The best important thing in manufacturing is material; neither a designer nor a manufacturer. However, I am making the best leather product in our current situation now. Someday, I want to go to the country of origin for leather and crude rubber sole and import the best leathers and rubber soles in order to make shoes for that year. Just the thought of it makes me happy and excited.

마스에마스 구두만의 특징을 말씀해주신다면?

구두를 만드는 분들이 하루 10시간 넘게 본드 냄새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위해 만드는 구두로 인해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게 낫다는 생각으로 본드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여 가죽 부분에는 전혀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생고무창을 붙일 때에만 사용하여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에마스는 생고무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드도 붙였을때 접착력이 강하지 못해 신다보면 조금씩 앞쪽 창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떨어졌을 때, 다시 접착하면 단단히 고정됩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좋을테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에 마스에마스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이상 구두가 질을 수 있는 그날까지 수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고무창은 접착력이 좋고 값도 저렴하나 조금만 신어도 닳아 가죽까지 손상을 주기에 앞으로는 접착력은 떨어져도 튼튼한 생고무창을 사용할 것입니다.



Please tell us about speciality of mais e mais's design?

If a shoe maker has to work 10 hours or more with strong glue smell, I would not make shoes, because it is ironic to make a person unhappy in order to make shoes for people. So, I want to reduce the use of glue as much as possible and make shoes more strong. By choosing thick leather, I do not use glue on leather itself and only use glue for the sole of a shoe. Moreover, I only use crude rubber sole and a disadvantage of using this is that it does not adhere to the shoe body with adhesive, so that as time goes by the sole can be separated a bit easier than other shoes. (Fortunately, the sole can be attached to the shoe body very easily).

I wish I could make unseparating sole, but it is impossible so far with the crude rubber sole. Therefore, mais e mais provide after service until the shoes can be wore. Normally-used sole sticks well and it is much cheaper; however, it easily wears out and even damages leather. So, we will use strong crude rubber sole.

마스에마스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인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마스에마스 구두는 될 수 있으면 정 사이즈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에 따라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죽이 절개가 많아 서로 겹처지는 부분이 많은 구두는 조금 작아지기도 하고,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구두 역시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가죽일 때에는 오히려 조금 커지기도 합니다. 구두를 만드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때에 사이즈 문의를 하지 않고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될 수 있다면 문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say to the customer who already bought your products or who are planning to buy them?

mais e mais tries to make shoes in right size measurement; however, it is normal to have slightly smaller or bigger size than marked size. In case of a design that has more cutting line or has thick leather material, they tend to come out small-

er.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a design that has soft leather material, they tend to come out bigger. There are many people who order products without any inquiry on size matter, however, I recommend you to ask us before you order.

평소 가죽 구두 관리를 위한 팁을 알려주신다면?

가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윤기를 조금 잃게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따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마스에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케어 제품 중 가죽 영양 크림 종류를 사용해도 되고, 만약 갖고 있는 보디 오일(호호바 오일)이 좋습니.)이나 핸드크림 있다면 우선 천으로 이물질 등을 제거를 해주고 손으로 구두 표면에 보디 오일이나 핸드크림을 바르고 흡수시키면 조금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웨이드 소재 같은 경우는 구두 솔라 자주 살살 털어주면 얼룩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Please tell us leather shoes management tips.

Leather products will have cracks and loose shine as time goes by. In order to keep the best quality of leather as much as possible, you will need to provide extra nourishment. Among Shoes Care products that are sold in mais e mais, you can use one of Leather nourishing creams, or you also can put body oil or hand cream you have on the leather surface with your hand (Jobobaol is recommend) after removing dirt on the surface.

그동안 마켓엠에 파트너십을 쌓으며 문화와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마켓엠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떠한가요?

평소에 마켓엠에 대해 느꼈던 부분이 소소하게 다가오는 일상의 여러 부분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 만들어 주는 '일상 디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쌓으며 느낀 부분은 무리하지 않는 업무의 자연스러움과 막힘이 없는 소통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마켓엠의 디자인 또한 누군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You shared culture and experiences with market m* in our partnership relation. What is your impression so far on market m*?

When I thought of market m*, it was a company that "Designs Daily Life" by adding little bit of fun on our simple daily life. Moreover, through partnership and communication with market m*, I think market m* has very unaffected and natural workflow and communication without any excess. I think that is why market m* can be naturally part of someone's life.

앞으로 마스에마스가 나아가길 방향과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브랜드를 만들어 낸다는 건 깎고 깎아서 뾰족해지거나 둥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지치지 않도록 잘 견뎌 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고 싶을 때 그냥 놓아 버리고 쉬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오래 달리기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빠르게 가려고 욕심을 내었다가는 오히려 쓰러져 버리고 말겠죠. 지금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좋은 소재들의 수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때쯤에는 마스에마스 구두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아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족을 만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구두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조금씩 천천히 편안하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What is mais e mais's plan and direction of your company?

Establishing a brand is the same as passing through abrasion process so that being sharpen or getting round. I have to face a lot things and it is not easy to endure everything and stand still. I think it is the same as marathon because it is not what I can stop whenever I want to. Also, if I run too fast as being blind with avarice, I will fall down in the middle of the race.

The most important issue these days for me is acquiring good materials for shoes. I am sure that when I make shoes that I am satisfied with; many people will love mais e mais. I will try to do design and manufacture respectable shoes, even for one pair of shoes. Therefore, my direction and goal is providing comfortable and strong footwear to my valued customers by making failures and mistakes a stepping stone of success.



PAPIER TIGRE

Papier Tigre는 2011년에 설립된 프랑스 파리의 디자인 문구 브랜드입니다.
다채로운 그래픽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각종 문구 제품과 일상 속의 독창적인 생활 소품을 선보입니다.

Brand Papier Tigre
Name Label Sticker Set
Price ₩ 34,000



Brand P.F.S
Name 12" Wall Clock _Gray
Price ₩ 128,000

New!



Brand Wednesday71
Name 베이스 M _Brown
Price ₩ 15,500



Brand M&B Furniture
Name 휴지걸이
Price ₩ 27,500

Best!



Brand ART WORKS STUDIO
Name Enamel shade _Green
Price ₩ 135,000



Brand Clay shop
Name Bakery Bottle _Tree
Price ₩ 32,500

Best!



Brand Wednesday71
Name 양철 기본트레이 _Silver
Price ₩ 9,000



Brand Wednesday71
Name 화분걸이 _Silver
Price ₩ 12,500



Brand Market m*
Name 포스터 _Botanic garden
Price ₩ 30,000



Brand Analog life
Name Baby 크로스 오버
Price ₩ 39,000

New!



Brand Wednesday71
Name 가드닝 스티커
Price ₩ 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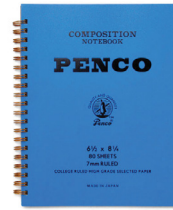


Brand Analog life
Name 트래블 백 _Bike
Price ₩ 7,500

Best!



Brand Analog life
Name 네이비 스트라이프 앞치마 M
Price ₩ 35,000



Brand Penco
Name Coils note L _Blue
Price ₩ 8,500

New!



Brand Analog life
Name 코튼 플랫폼슈즈 _White
Price ₩ 10,500



Brand Papier Tigre
Name Notebag
Price ₩ 48,000

Best!



Brand P.F.S
Name Swich plate Alumi _2구
Price ₩ 9,800

New!



Brand M&B Furniture
Name 식탁 6인용
Price ₩ 928,000



Brand Wednesday71
Name 멀티 퍼포스 바스켓 _Green
Price ₩ 2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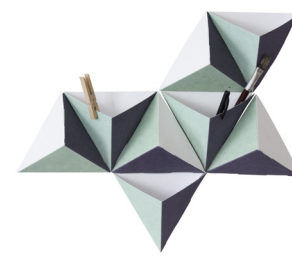


Brand Insence music works
by Wired cafe
Name ISLAND CAFE Surf trip 2
Price ₩ 25,500

Best!



Brand M&B Furniture
Name 찰재 폴딩체어 _Black
Price ₩ 68,000



Brand Papier Tigre
Name Tri-Angle boxes #2 _3colors
Price ₩ 48,000



Brand M&B Furniture
Name 초박스(2ea)
Price ₩ 15,500

New!



Brand Wednesday71
Name 가드닝 툴 세트
Price ₩ 14,000



Brand HAPPYsthlm
Name Cushion cover _Blue
Price ₩ 62,000

작은 차이로 큰 변화를! _스위치 플레이트 교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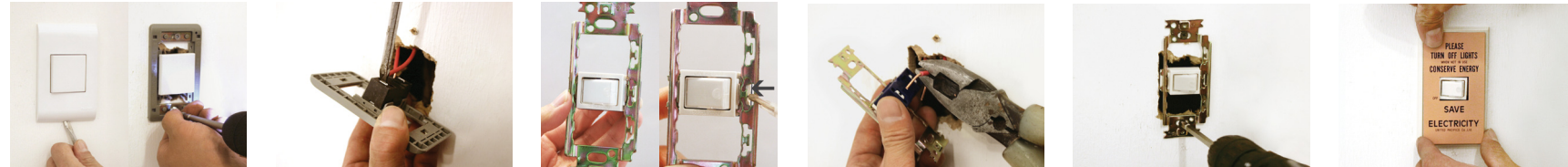
벽지 컬러, 소파, 조명 등을 세심하게 골라 인테리어를 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비용과 노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공간의 모든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고 작은 변화만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스위치 플레이트를 바꿔보자!



How to change the classic switch plate?

작업 설명서

※ 작업 전 반드시 차단기 전원 OFF



1. 스위치 커버를 떼어내고 나사를 풀어준다.
2. 드라이버로 고정 핀을 눌러, 전선을 분리한다.
3. 불임식의 T자 핀을 밀어 스위치를 고정한다.
4. 분리된 전선을 새로운 스위치에 끼워 넣는다.
5. 위 아래 구멍에 나사를 박아 벽에 고정한다.
6. 플레이트 커버를 끼워 맞추면 완성!

자세한 교체 방법은 마켓एम 홈페이지 Community > Videos 란의 동영상을 참고 하세요!

Let's pick the Switch plate!

마음에 드는 제품 고르기

※ 마켓एम 온라인샵 Interior > Switch / Lighting 란에서 만나보세요!



Size 1구, 2구, 3구 W70 x H120 mm | 6구 W116 x H120 mm | 9구 W165 x H120 mm (Carving제품)
Color Carving, Lemon, Orange, Alumi-white, Alumi-Black, Alumi-plain

일본 P.F.S.사의 통셀러 아이템으로 플라스틱,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1구, 2구, 3구, 6구, 9구 구성의 메인보드 교환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오리지널 스위치 플레이트.



Size 1구, 2구, 3구 W70 x H123 mm
Color Ivory, Gray, Green, Alumi

일본 ART WORKS STUDIO 제품으로 SAVE THE ENERGY 문구를 프레스로 눌러 입체감을 살린 스위치 플레이트.

Welcome to our home!

마켓एम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며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경해 보자!



제주 황의정 님

#M&B가구 #침대A #화장대 #패브릭스틀 #헵탁S

나무로 된 천장과 M&B가구들의 만남은 더욱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침실로 만들어 준다.



경남 권미옥 님

#M&B가구 #TV장서랍형S #책장A #명판박스

공간의 따뜻함을 주는 색감을 가진 M&B 가구들로 꾸민 거실은 오래도록 질리지 않고 깔끔하다.



부산 홍유정 님

#Wed71 #철사 편지꽂이 #양철 명판박스 #화분받침

Wed71의 철사 편지꽂이에 예쁜 엽서를 꽂아두고 양철 명판박스를 화분으로 활용하여 집안에 싱그러운 공간이 생겼다.



서울 김현정 님

#M&B가구 #식탁 #폴딩체어 #기본의자 #미니선반

마켓एम의 스테디 셀러 M&B 식탁은 어느 공간에 두어도 어울리는 내추럴한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부산 윤영인 님

#PFS #램프셰이드 #HIGHTIDE #액자

하늘색 상큼한 컬러의 PFS의 램프셰이드가 포인트가 되어 집안 이 생기 있어 보이며, HIGHTIDE의 액자가 아가지기함을 더한다.



경남 임호영 님

#Wed71 #양철트레이 #서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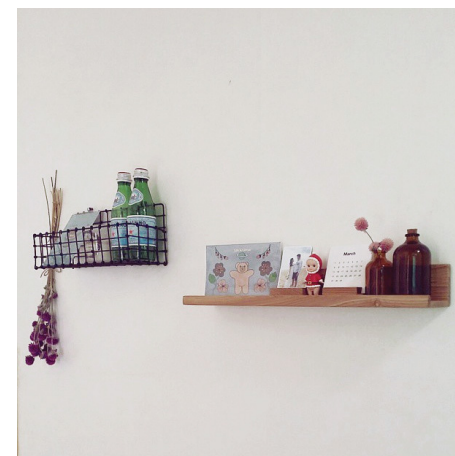
양철 트레이를 서랍처럼 활용하여 많은 컵들을 정리해 놓으니 깔끔해서 보기 좋고 손잡이가 달려있어 편리하다.



서울 노현석 님

#M&B가구 #책상B #패브릭폴딩체어 #메모박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M&B 책상과 패브릭 폴딩체어로 깔끔한 스타디움을 완성시켰다.



경남 유현지 님

#벽걸이철사바구니 #월행거 #시약병 #엽서달력

벽 공간에 벽걸이 철사 바구니와 월행거를 달아 아가지기한 소품들로 꾸며주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서울 이건우 님

#PFS #Pillar Bracket #Shelving stay #DIY

PFS의 DIY 브래킷 시리즈인 Pillar Bracket과 Shelving stay를 이용하여 벽면에 선반을 만들어 다양한 물건들을 꾸며놓았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맛있는 영화

요즘 '요리', '쿡방'이 대세인 이유는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위로와 치유가 되기 때문 아닐까?
더운 여름 날, 달콤한 휴식과 함께할 만한 맛있는 영화를 추천한다.

A Perfect World [퍼펙트 월드]

클린트 이스트우드 | 1993 | 138min | 미국 | 12세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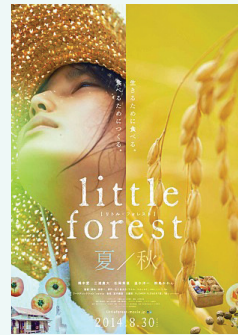


〈퍼펙트 월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와 연출을 동시에 한 작품이다. 8살 소년 '필립 페리'는 홀어머니의 엄격하고도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지란다. 탈옥수 '버치' 역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청소년기에 이미 범죄자가 되었다. 탈옥 후 도망치던 중 인질로 잡은 '필립'에게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의 짧은 여행이 시작된다. 두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 탈옥수와 인질이라는 세상의 편견을 뒤로하고 진정한 친구가 된다. 줄거리가 진행되면서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에 쫓기는 중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만들어 먹 는 '머스타드 샌드위치'는 이상하게 맛있어 보인다. 두 사람의 훈훈한 분위기로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 되고, '머스타드 샌드위치'를 함께 나눠먹는 이들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준다.

〈퍼펙트 월드〉는 7월 중순 부터 8월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2015 시네바캉스 서울'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서울아트시네마 홈페이지 www.cinematheque.seoul.kr) 글 서울아트시네마 기획홍보팀장 석영화

Little Forest: summer&autumn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모리 준이치 | 2014 | 111min | 일본 | 12세 관람가



여름의 수증기를 머금은 분지마을 코모리의 온도와 습도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장면으로 차분하게 시작되는 이 영화는 도시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이치코'의 자급자족 유기농라이프를 사실감 있게 보여준다. 매일 매일 특별한 것은 없지만, 맘둘러 일한 뒤 직접 가꾼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며 소박하게 흘러가는 모습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돌아보게 된다. 식혜, 수유열매잼, 토마토 등을 이용해 요리하는 과정의 정갈한 색깔과 소리에 눈과 귀를 뽐수 없다. 밤 하늘의 수 많은 별, 숲의 나무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 바람부는 소리 등 보는 내내 무언가 치유되는 기분이 드는 영화다.

Chef [아메리칸 셰프]

존 파브로 | 2014 | 114min | 미국 | 15세 관람가



잘나가던 레스토랑의 셰프였던 '칼 캐스터'가 한순간 유명 블로거의 흑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요리를 위해 푸드트럭 셰프가 되어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까지 그려낸 유쾌한 영화다. 웬지 낯설지 않았던 셰프 '칼 캐스터' 역할을 맡은 배우는 어벤저스로 알려진 감독 '존 파브로'가 직접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데, 무심한 몸집과 무심한듯 특색 요리를 만들어내는 손맛이 셰프를 연기하기에 손색없게 느껴진다. 쿠바 샌드위치, 알리오올리오 등의 맛깔스러운 음식의 비주얼과 함께 흥겨운 라틴음악이 어우러져 흐뭇하고 기분좋은 감상할 수 있다.

글 마켓팅 디자인팀 김소영

여름 휴가와 함께 하는 노래

무더위에 지치는 계절이지만 이 계절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면 바로 휴가가 아닐까?
때로는 시원한 청량음료 처럼, 때로는 나른한 단점과 같은 나만의 BGM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글 마켓팅 디자인팀 이현아



Little Numbers BOY

독일과 스위스 태생의 두 여성 멤버로 구성된 포크 듀오 BOY의 데뷔곡, 경쾌한 박수소리로 시작하는 싱그러운 곡을 들노라면 문득 어딘가로 떠나고 싶기도 하는데, 특히 이 뮤직 비디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촬영되어 그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다. 편안한 풍경들과 기분 좋은 햇살이 행복한 기분으로 만들어준다.



Empty Nesters toro Y Moi

'어병하고 착해보이면서 전형적으로 바보같지만 맛있는' 그런 흑인이라고 어느 블로거가 표현한 대로 귀여운 외모의 미국 출신 뮤지션 Toro Y Moi의 가장 최근 앨범의 곡, 칠웨이브 장르의 대표로 불리우면서 펄크와 복고가 섞인 유니크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이런 싱글한 곡들을 흥얼거리다면 여름의 무더위 속에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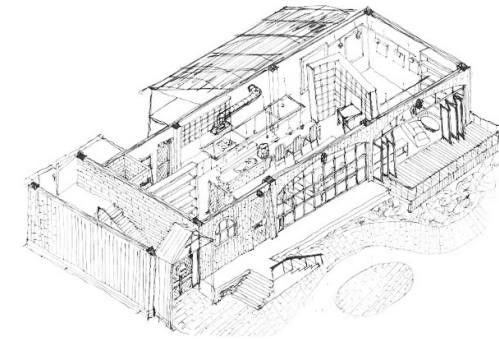
오늘부터 잠마 전자양

2001년에 데뷔한 전자양 1집의 독특한 분위기의 곡이다. 앨범 전체가 몽환적 이면서 알수없는 가사들로 차음에 낯설기도 하지만 그 특이한 질감이 오히려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여름의 더위와 잠마가 무르익을 때 오히려 묘하게 기분좋은 우울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축축하게 늘어지고 싶을때는 전자양의 음악을 듣고싶다.

ZERO PLACE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되찾고 싶다면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만한 진정한 휴식의 공간을 소개한다.

글 김희진 사진 정보 제로 플레이스



부모님의 오래된 식당을 탈바꿈시켜 만들어진 '제로플레이스'는 미니멀하면서도 빈티지한 분위기의 각기 다른 5개의 객실과 함께 1층 카페로 이루어져있는 디자인 펜션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0으로 돌아가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제로플레이스는 무언가를 더하기보다는 비워내고 덜어내어 만들어졌으며,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힐링 스테이이다. 의미처럼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깔끔한 객실 내에서 편히 쉬며 바로 앞에 위치한 황락 호수를 바라보면 복잡했던 머릿 속을 맑게 해줄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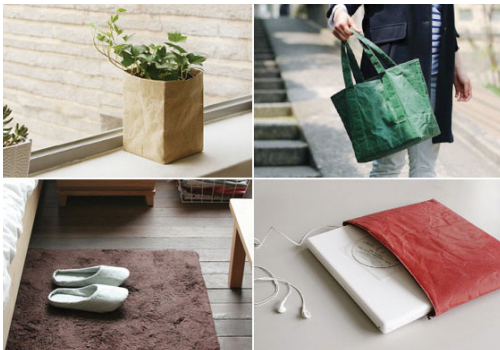
또한 1층 카페에서 크리에이터의 재기발랄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Fun Shop'도 운영하고 있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15년, 여름 소식!

Sale & Event

SIWA, 클리어런스 세일!



일본 제지회사 ONAO와 산업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생활용품 브랜드 SIWA의 50% 클리어런스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샵과 경북공점에서 만나보세요!

Notice

소가구류 택배 배송 실시!



사이드테이블 SET, 협탁S, 사다리, 기본스툴 등 M&B 가구의 일부 소가구류에 한하여 택배 배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보다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Good things* 배포처 모집



마켓엠의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Good things*의 배포처로 신청하세요! 배포처를 희망하는 카페, 레스토랑 등의 매장에서 간단한 소개와 사진을 첨부하여 help@market-m.co.kr 로 접수하면 됩니다.

Other business activities

일본 고베의 지역 특산물, 아리마 사이다 런칭!



천년 역사를 가진 일본 최초의 사이다

ARIMA CIDER TEPPPO WATER

아리마 온천지 천연 탄산수의 강한 탄산과 소다의 청량감을 살린 일본 효고현 고베의 대표적인 지역 상품, 아리마 사이다를 만나보세요!



강한 탄산과 소다의 청량감을 살린, 아리마 사이다 (330ml)



아리마 사이다 맛을 재현한, 아리마 사탕 (30개입)

※ 도소매 문의 / 이승원 팀장 T. 010-9142-6428 E. tmc-lsw@market-m.co.kr



발행 엠퍼블리싱 ISSN 2288-4343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3길 5 (통인동 118-10) 대표전화 02 325 4769 팩스 02 335 4769 홈페이지 www.market-m.co.kr 광고 및 배포처 신청 help@market-m.co.kr 발행인 이현우 기획 이현아 편집·디자인 김희진 사진 김소영 번역 복진하 인쇄 인쇄메이드 marketm_life blog www.marketm-life.com

Market m*이 만든 출판사인 <엠퍼블리싱>의 Good things*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무료 배포되는 계간지로 전국 각 도시 중심거리의 카페, 샵, 레스토랑 등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Good things* by TMC INTERNATIONAL INC. Copyright © 2015 All rights reserved. 굿띵즈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주)티엠씨 인터내셔널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